

<보도자료>

<이 기사는 "사이언스"의 규정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10 월 9 일 14:00 시, 한국시간으로는 10 월 10 일 03:00 시 이후에 보도할 수 있습니다>

40 개국으로 구성된 연구진,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경고

40 개국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연구진은 "사이언스" 최신호를 통해 대체출산율(한 세대를 다음 세대로 대체하는 출산율인 한 여성당 2.1 명의 자녀)보다 약간 낮은 출산율이 오히려 한 나라의 전반적 경제적 생활수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출산율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1.19 에 불과해, 이는 한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논문의 공저자중 한 명인 이상협 하와이대학 경제학과 교수 및 동서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너무 낮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독려해야 하는 전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로 나타났다" 라고 조언했다.

하와이 동서센터와 버클리 대학이 주도하는 40 개국으로 구성된 "국민이전계정" 연구진은 지난 10 여년 동안 인구변화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해 왔는데, 이번 각국의 출산율 자료를 경제데이터와 연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여성당 두 명, 또는 그보다도 약간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그 나라의 생활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연금이나 공공보전 등의 조세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출산율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자녀양육비용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학자중 한 명인 버클리대학의 인구학자인 로널드 리 교수는 "출산율이 너무 낮은 지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자녀양육의 제약요소들을 줄이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를 이끈 또다른 학자인 하와이대학 경제학과 및 동서센터의 앤드류 메이슨 교수는 "현재의 출산율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중간소득 또는 고소득 국가들에게 걱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와 유럽국가에서는 민간과 공공이 부담하는 자녀 양육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국민의 전반적 생활수준이 저해되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나서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연구에는 하와이대학의 이상협 교수와 성균관대학의 안종범 교수(현 청와대 경제수석)가 한국의 대표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한국인 경제학자가 과학논문지인 "사이언스"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2007 년 경북대 최정규 교수 이후 두번째이다.

문의: 이상협, 하와이대학 경제학과, 동서센터, leesang@hawaii.edu, 1-808-956-6390

Andrew Mason, East-West Center: amason@hawaii.edu

Ronald Lee, UC Berkeley: rllee@demog.berkeley.edu